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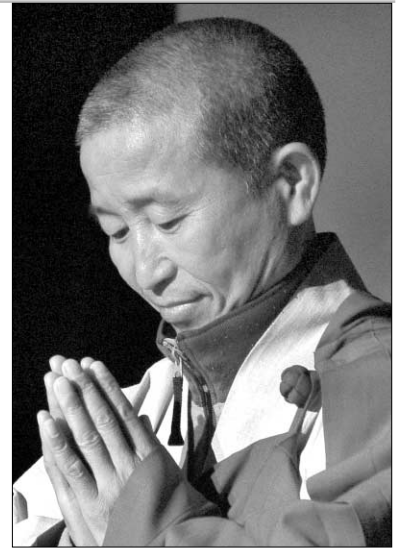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9강 : 이와같이 들었다 - 다문제일 아난다

강사 : 도법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1.30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21세기형' 수행자... 비구니출가에 결정적 역할



11월 30일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아홉번째 강에서 도법 스님은 "아난 존자야말로 21세기의 수행자들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분"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십대 제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난(阿難 Ananda) 존자의 역할은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아난 존자가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이 아득한 옛날 얘기보단 전해져 올뿐 그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릅니다.

경전 자료들을 보면 아난 존자가 관계하지 않은 경전은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 모든 경전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난 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엮어 경전이 된 것입니다. '다문(多聞)제일'로 불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하나

도 잊지 않고 온전하게 다 기억했습니다.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외우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했던 아난 존자의 이런 역량이 없었다면 오늘날 불교경전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만 모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난 존자에 대해 다시 알고, 깊은 고마움을 간직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 20년쯤 되어 아난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때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잘 모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사임합니다. 그러나 선후배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때 '네 가지 원하지 않는 조건과 네 가지 원하지 않는 것은 첫째, 부처님

께서 받으신 좋은 음식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 둘째,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의복을 주지 않을 것, 셋째, 부처님이 거처하는 곳에 함께 지내지 않을 것, 넷째, 부처님을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조청했을 때 함께 가자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거나, 오히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 존자는 정 반대입니다. 부처님을 시봉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 시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줘야 한다고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첫째, 부처님을 청했을 때 받아주실 것,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부처님 양모와 부인 야소다라, 석가족 여인들은 출가를 작심하고 출가사 문들처럼 머리 깎고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500리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을 거절할 합니다.

이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수행을 잘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여성도 해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삶을 살도록, 깨달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는데 왜 여성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에 의지해서 내 생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물이 곧 내 생명입니다. 물이 병들고 썩고 죽으면 그것을 마시는 내 생명도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해가 없으면 내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에 의지해서 내 생명이 성립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은 '이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저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게 된다'며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존재는 연기의 존재입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 생명이 존재합니다.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자타불이(自他不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경연으로 터득하는 것을 불교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이루어 주는 모든 대상을 내 생명처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을 불교에서 '자비'라고 합니다. '동체대비의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일러서 '복과 지혜가 원만구족한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큰 집, 많은 재산, 좋은 자동차, 세상 떠들썩한 명예와 출세하는 것 등등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구족한 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돈이 많고, 큰 집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의 논리로 보면 부처님은 그야말로 박박한 인간입니다. 밥그릇 하나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박박할까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지혜와 복덕이 원만구족한 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분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돈 권력 명예 재산으로는 결코 우리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복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까. 그것은 곧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몽상을 버리고 떠나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이며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해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보여줬던 분이 부처님이고,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줬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잘 듣고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속에 나 존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때때, 신도나 스님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빌고자 청했을 때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받아주실 것, 셋째,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을 경우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기꺼이 대답해 주실 것, 넷째, 아난 존자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리에서 설법을 할 경우 그 법문의 내용을 아난 존자에게 다시 들려줄 것.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편한 것, 좋은 것은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난 존자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난 존자는 비구니 출가를 허락받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 아난 존자가 아니었다면 비구니 스님은 불교 역사 속에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날 부처님을 키워준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성도 수행을 하고 싶다면 여성의 출가를 청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예 그런 이야기를

아난 존자의 적극적이고 간곡한 청으로 마침내 부처님이 조건부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아난 존자의 인간적이고 지성적이고 현명한 노력에 의해서 비구니 스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여실지견(如實知見)'입니다. 존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아는 이것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절실한 문제인 '나'와 '내 생명'에 대해서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몽상(顛倒夢想)'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여 내 생명 따로, 내 생명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질의응답

문 : 아난 존자는 25년간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다니시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법 스님께서도 선재동자처럼 생명평화탁발승례를 다니시며 수많은 '부처'를 만나고 계십니다. 탁발승례의 의미를 들려주세요.

답 : 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전국 순례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만 리 가까이 걸었고,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4만 여명 정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 가치이고, 궁극적 이상이기도 한 '생명평화의 삶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를 주제로, 우리 시대가 생명평화의 문화로 물결쳐서 흘러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병과 많은 모순들이 양산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걸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음의 중요성을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사회에 걸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귀가 두 개인 것은 하나는 자기 소리, 하나는 바깥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자기 소리를 듣는 귀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바깥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 소리를 듣지 않는 삶의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걸으면서 듣고자 합니다. 정리 · 사진·이준영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1)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해외국민등)	비고
인문 사회	불교학과	21	2	
	역경학과	21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계(명)		84	2	86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년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 ◇ 장 소 : 본교 교학처
- ◇ 교부기간 : 2005. 12. 5(월) ~ 2005. 12. 28(수)
- ◇ 접수기간 : 2005. 12. 24(토) ~ 2005. 12. 28(수) 17:00까지
-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2006년 졸업예정자 포함) 1부
- 4) 승적증명서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사진 (종단 의계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계규정 준수 제출 요망
-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5)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 2) 전형료 : 60,000원

6) 전형일정

- ◇ 예비소집 : 2006. 1. 18(수) 13:00 ~ 14:00
-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6. 1. 18(수) 14:00
-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7) 기타

- '06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년	학점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00명
		23	역경학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14	전학과	00명
				00명

2)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6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남 만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6년 3월에 조계종 승남 만 2년 이상인 자
-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4) 기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2006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980-7713~5